

卷頭言

學術委員長 蘇 秉 昌



우리 韓藥人은 民族醫藥의 主體로서 오랜 동안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仁術을 베풀어왔다. 特히 다른 의약인이 기피하던 農漁村의 奧地에서 성실하게 奉仕해 온 事實은 스스로 大見하게 評價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名醫들의 名方도 많았으나 이것을 蒐集하여 記錄으로 傳하는 일이 게을렀습니다. 더구나 우리 韓藥業士는 後輩가 輩出되지 않는데다 會員은 날로 줄어들고 있어서 참으로 아까운 處方과 資料들이 死藏되어 가는 매우 안타까운 實情에 있습니다.

「大韓韓藥」학술지의 매년 발간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뜻깊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學術委員會들이 心血을 기우려 全國에 散在한 會員들의 經驗方 등을 널리 蒐集하여 「東醫驗方新纂」을 發刊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東醫寶鑑以後 가장 훌륭한 著書라는 極讚과 아울러 聲援이 藉藉하여 우리들은 自負心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바 있었습니다.

不足한 제가 學術委員長職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大韓韓藥 5號, 6號 그리고 增補東醫驗方新纂에 다시 第7號誌를 發刊하여 會員들에게 配布하고 大過없이 任期를 마치게 되어 스스로 기쁜 마음 禁할 수 없습니다.

學術誌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精誠을 다해 投稿하여 주신 會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드립니다. 더욱 좋은 冊을 만들어 보려고 無限히 努力하였습니다만 제 정성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한 점을 널리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책이 계속하여 刊行되기를 期待합니다.

2003年 6月